

## 금융거래정상화 및 국민·주택은행원 직장복귀 관련 관계장관 간담회 논의

1. 장영철 노사정 위원장, 진념 재경부장관, 김호진 노동부장관, 이근영 금감위원장 및 전철환 한은총재는 오늘 (12.27) 오전 10시 류시열 은행연합회장, 김상훈 국민은행장, 김정태 주택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거래 정상화 및 파업중인 국민·주택은행원의 직장복귀를 촉구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였음
  2. 이 자리에서 관계장관과 은행장들은 먼저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국민·주택은행원의 불법파업이 촉발됨으로써 특히 연말 자금성수기에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큰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였음
  3.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금융구조조정이 우리경제시스템 개혁의 기본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국민·주택은행의 자율적인 합병은 국경을 넘어 펼쳐지고 있는 무한경쟁에서 우리 금융산업이 살아남고 세계수준의 경쟁력 있는 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임을 다시한번 확인하였음
  4. 또한 현재 진행중인 국민·주택은행원의 파업은 경영권에 해당되는 합병과 관련되는 것인만큼 그 목적이나 수단면에서 모두 불법임을 재확인하였으나, 조속한 금융거래정상화를 호소하는 측면에서 내일(12.28) 오전 9시 30분 영업 개시전까지 직장으로 복귀하는 일반직원의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복귀를 거부하거나, 다른 직원의 복귀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법과 은행 내규에 따른 엄정한 처리가 불가

피하며, 특히 불법파업사태가 조기 해소되지 못할 경우 감독법규에 따라 해당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단계적으로 발동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였음

5. 이와관련 국민·주택은행에 대하여 은행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특히 합병에 따른 고용안정문제는 노사간에 성실히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양은행장에게 특별히 당부하였음

6. 아울러 타은행들도 국민·주택은행의 금융거래정상화를 최대한 지원하여 고객들의 연말 금융거래수요 충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였음

○ 더욱이 양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이음·수표 거래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음

7. 중앙은행도 연말결제자금 지원과 관련 유동성이 부족한 은행에 대해서는 자금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였음

8. 관계장관과 기관장들은 이번의 어려움이 우리 금융산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과도기적인 고통으로 인식하고 정도와 원칙에 입각한 확실한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경제의 활력을 되찾아 나갈 것을 다짐하였음

○ 아울러 연말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뒷받침하여 고객에 불편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나갈 것임을 다시한번 확인하였음

○ 정부도 국민·주택은행의 합병은행에 대하여 신규사업허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세계적인 은행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한편, 고용안정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음